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3> 모든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하니

부처님 교단에서는 살생, 음행, 도둑질, 거짓말이 네 가지 계목을 어기면 옹서할 수 없는 큰 죄로 규정,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라고 한다. 이 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승단에서 쫓겨나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다. 승려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한가지기도 또 죽어서는 영원토록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든 무섭고도 엄중한 계목이다. 그러나 <선가귀감> 33장에서는 죄의 참다운 성품을 알면 죄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성불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를 보고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랑스런 딸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에 애가 타면 어머니는 마침내 제 책을 써서 비구를 유언하러 '제 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니 스님께서 자주 오셔서 밥을 설해 주소서'라고 말했다.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간청에 못 이긴 비구는 할 수 없이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여자는 병이 차츰 나았고 비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비구는 마침내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

諸觀殺盜淫妄 從一心上起 當處便寂 何須更斷.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온갖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하니, 어찌 여기에 버려야 할 번뇌가 남아 있겠는가.

죄의 참다운 성품을 알면 성불 한생각 일어날 때 실제 없음 알아야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무생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텅 빈 마음이 되니, 세간의 법이 없어서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들 번뇌 자체가 없어서 버려진 이들 과보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법의 실체는 알고 보면 텅 비어 있는 고요한 성품이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하여 변화할 것이 없다. 범부들은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에 집착하여 잘못된 과보를 받을까봐 크게 두려워 하지만,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인과를 뛰어 넘어 바로 열반에 든다.

옛날 용시(勇施)라는 비구가 있었다. 열 굴이 잘 생겨서 좋아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탁발하러 온

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젊은 부인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비구는 그 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두려웠지만, 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으므로 음식에 물레 독을 타서 남편을 죽여 버렸다.

비구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불행한 일에 크게 누우치며 "음욕과 살생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나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감히 법복을 입을 수 없으니 벗어놓고 살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중죄를 범했으니 누가 나의 참회를 받아들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였다.

그러다 비구다라 존자를 만나게 되었다. 존자는 비구를 경책하며 말하기를 "격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법을 설하리라. 죄의 성품이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계승으로 말했다.

諸法同鏡像 亦如水中月 凡夫愚惑心 分別癡志愛

모든 법은 거울 속의 그림자 같고/ 강물 속에 떠 떠는 달과 같은데/ 범부들은 어리석게 이에 집착하여/ 욕심내고 성을 내며 분별을 한다.

비구는 이 소리에 마음이 푹 트여 크게 깨달은 뒤 보월여래(寶月如來)가 되었다. 무생(無生)의 이치를 알고 성불하여 지금 까지 보월여래라는 이름으로 계신 분이기에 때문에 <중도가>에서 "용시 비구가 중죄를 범했으나 무생의 이치를 깨닫고 성불하시니, 지금까지 공경 받는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라고 하였다.

음행과 살생에 연관된 용시 비구가 성불했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큰 죄를 지어 가며 공부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불법을 바로 믿고 그대로 공부하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극악한 사람도 바른 법을 바로 믿고 공부하면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는가.

서산 스님은 '이 단락에서 성(性)과 상(相) 함께 드러낸다. 경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를 무명을 영원히 끊은 것이라 한다'고 했고, 또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안다'라고 했다.

성(性)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한 것(當處便寂)'이고, 상(相)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從一心上起)'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不起一念) 상(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인연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니 일으킬 번뇌가 없어 영원히 무명을 끊었다는 것이다(永斷無明). 한 생각이 일어날 때(念起) 그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아니(即無) 어찌 여기에 버려야 할 번뇌가 남아 있겠는가.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없이 참선만 한다는 적묵당(寂默堂), 강설과 참선을 아울러 한다는 설선당(說禪堂)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염화실은 조실스님이나 큰 스님이 머무는 곳이고, 향적대(香積臺) 혹은 향적전은 향나무를 때서 밥을 짓는다고 해서 불인 절의 부엌입니다. 요사채는 예전에 대웅전 뒤에 있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대웅전의 앞이나 옆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경과 존엄의 대상인 대웅전을 내밀한 공간에 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일상잡사를 염속공간인 대웅전을 지나서 수행한다는 게 적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요사채는 소박하고 단순한 건축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자유롭게 지었지요. 김철우 기자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요사채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지어진 절집이지요. 여기에는 선방이나 승방은 물론 기숙, 부엌, 축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도들이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런 요사채에서도 격에 맞춰 그럴듯한 당호(堂號)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지혜의 칼을 찾아 무명의 풀을 베는다는 검검당(帶劍堂), 고요하게 말

없이 참선만 한다는 적묵당(寂默堂), 강설과 참선을 아울러 한다는 설선당(說禪堂)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 염화실은 조실스님이나 큰 스님이 머무는 곳이고, 향적대(香積臺) 혹은 향적전은 향나무를 때서 밥을 짓는다고 해서 불인 절의 부엌입니다.

요사채는 예전에 대웅전 뒤에 있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대웅전의 앞이나 옆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경과 존엄의 대상인 대웅전을 내밀한 공간에 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일상잡사를 염속공간인 대웅전을 지나서 수행한다는 게 적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요사채는 소박하고 단순한 건축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자유롭게 지었지요.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0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4장 9장 '해석'을 향한 도정, 혹은 미로찾기

해능의 복덕성(福德性)이 내 해석과 다르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묻는다. <금강경>의 번역을 다시 보자.

'복덕성'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수보리아, 네 생각이 어떠냐.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질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福德)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대담하게 대답해라. 대단히 큰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째서겠느냐.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福德性)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為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即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여기서 나는 복덕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여기 복덕의 성질(性)이란, '내가 복덕을 의식하고 그 축적을 계산하고 있는' 분별을 가리킨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을 지워야, 그것으로부터 공(空), 즉 자유로워야 보시가 진정한 공덕으로 기록되고, 복덕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해능은 거꾸로 생각한다. 복덕성을 '진정한 복덕, 그 복덕됨'으로 적극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복덕성을 성취하기 위한 몇가

지 실천적 태도를 제안해주기까지 했다. 예컨대, "1) 마음에 능소(能所) 즉, 너와 나를 가르치고, 자기관찰대로 사바사신앙을 관정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2) 붓다의 말은 물론이고, 그 행동과 삶을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능의 해석에 따르면 <금강경> 본문의 번역은 전혀 달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복덕을 내려놓아야 하고... 2) 붓다의 말은 물론이고, 그 행동과 삶을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석의 갈래길 답사

과연 어느 해석이 맞을까. 판단은 유보하고 다른 사람 의견부터 들어보자. <금강경>의 오가해에는 무착(無著)의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실려 있는데, 거기 복덕성 구절 밑에 이런 훈수가 붙어있다.

"無著云, 是福者標識, 即非者約勝空, 是故者約世俗有." 무착은 내 편을 들고 있는 듯하다. 인도식 훈고를 본론 것이라 주석은 불친절하고 간략하기 이례데 없지만, 풀자면 이렇다. '복덕 운운한 것은 이름표를 붙인 것이다. 그것이 복덕성이 아니라'고 한 것은 최종적으로 공덕이 공(空)함을, 즉 성립

치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복덕을 운운한 것은 세속의 어법을 따른 것이다. '영역은 또한 내 편에 섰다. 콘즈의 영역은 "And why? Because the Tathagata spoke of the 'heap of merit' as a non-heap. That is how the Tathagata speaks of 'heap of merit'이다. 번역하자면, '왜냐, 여래는 공덕의 축적을 비-축적(非福德性)으로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여래가 공덕의 축적을 말하는 방식이다.' 이쯤되면 문자적으로는 내 해석의 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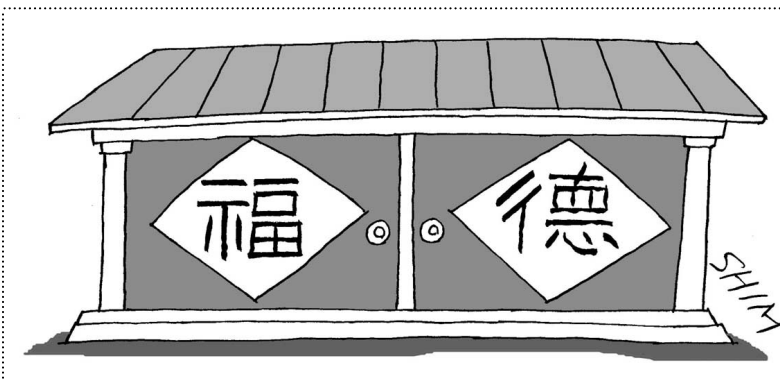
행복동 사람들

선업과 행복
배종훈 (bjh4372@hanmail.net)

결음을 멈추면 산을 오르지 못하듯 선업을 쌓는 일도 멈추지 마세요.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dong

불교의 저작에는 저자가 없다



하는가. 나는 이 독립이 기발하지만, 글씨, 원문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가만 있지, 다시 보니 그렇게 읽어 도 체례를 다치지 않는 것 같네... 이를 어찌 탐도 그런가? 하고 나가무라며 다른 번역 몇 개를 살펴봤더니... 다들 수부티의 언사로 들 적어놓았다.

이 구절을 너무나 당연하게 '붓다'의 말씀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탐사, 콘즈의 영역이 수부티(수보리)의 통찰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가우뚱했다.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 나가무라며 다른 번역 몇 개를 살펴봤더니... 다들 수부티의 언사로 들 적어놓았다.

계의 질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福德)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대담하게 대답해라. 대단히 큰 것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福德性)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틀림없는 것이다. 내가 틀렸나? 내 인상적 직감적 번역이 길을 잘못 들은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래도 그냥 피리를 내리기는 좀 뜻하다. 나는 판단이 헛갈릴 때, 대체로 처음 느낌이 옳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내가 구절을 '붓다'의 말로 의심없이(?) 판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무의식의 과정을 되짚어보니 이렇다. <금강경> 안의 수많은 역설적 화법들은 수보리가 아니라 '붓다'가 설한 것이다! 수보리는 때로 이 통찰을 미리 알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 깜박 놓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는) (가) 아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 앞에는 예외없이 '수보리아'라는 호격이 선행한다. 나는 이 패턴에 따라, 이 구절을 붓다의 말로 풀었다.

헛갈린다고 독자제현들께서는 너무 머리 쥐어뜯지 말기를 당부한다. 해석의 여러 갈래길을 추리소설처럼 쫓아왔으니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교는 그것을 '누가 말했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불교의 저작에는 지은이가 없다. 문제는 메시지가, 실천이다. 이 점에서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간명 직절, 모호한 구석이 없다. 하니, 이 연재 또한 괜히 평지풍파에 굶어부스럼, 아니면 하나하나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